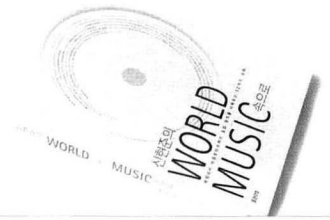


음악 없는 시대에 보내는 대안의 멜로디, 월드뮤직

《신현준의 월드뮤직 속으로》 신현준 지음 | 웅진닷컴 | 310쪽 | 값 15,000원



록음악 비평을 주로 해왔던 음악평론가 신현준 씨(41)가 월드뮤직에 대한 책을 썼다. 《신현준의 월드뮤직 속으로》는 여행하듯 12개 권역(아일랜드 섬에서 시작해 대서양을 돌아 태평양 연안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까지)의 월드뮤직 국가를 따라 음악을 만나는 책으로 7년 전부터 월드뮤직에 관심을 갖고 음악자료를 수집했던 신현준 씨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동안 들어왔던 음악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가요와 팝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이 우리의 삶과 별다른 관련 없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는데 그게 월드뮤직이라는 장르였습니다.”

그는 월드뮤직에 관심을 갖게 되면 서부터 살아가는 방식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음악이 존재한다는 걸 배웠다. 인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월드뮤직을 찾는 여정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서양 월드뮤직의 정의는 본래 영미 팝 음악과는 다른 어법의 음악, 팝이나 록의 변형이 아닌 음악, 인위적으로 보존된 전통음악이 아닌 음악 등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신씨가 소개하는 월드뮤직은 서양의 정의에 따라 구분된 월드뮤직과 완벽히 교집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서양의 정의에 따라 구분된 월드뮤직을 소개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음악은 제외되기도 했다. 신씨는 서양의 월드뮤직 정의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이런저런 담론들을 끌어내긴 하되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이 책이 단순한 ‘월드뮤직’에 머물지 않고 ‘신현준의 월드뮤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월드뮤직’이 무엇인냐고 물으면 ‘토속음악’ 정도로 이

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각들이 지나치게 상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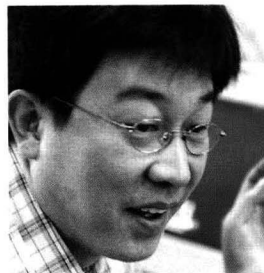
그가 알리고 싶었던 월드뮤직은 무조건 서양음악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는 음악이 아니다. 트렌드에 지나치게 둔감하지 않아 외부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음악이다.

그는 11장에 언급된 브라질의 밥 딜런 카에타누 벨로즈를 좋아하는 음악인으로 소개한다. 문화적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 돌연변이 같은 기질을 가진 그의 음악적 성향과 태도들이 신현준 씨가 생각하는 ‘월드뮤직’ 개념과 잘 맞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의 밥 말리라고 불리는 펠라쿠티도 그런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재즈, 펑크 음악에다가 요르바 족의 민속리듬을 섞었는데 아프리카 느낌만 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음악을 답습한 것도 아닌 고유한 음악을 만들었죠.”

그는 이들 음악이 일시적 유행가가 아니라 ‘존중받는 대중음악’으로 시대를 초월해 사랑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는 또 아프리카비트의 제왕, 가난한 노동자의 목소리, 흑인 대통령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펠라쿠티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음악이 문화이며 하나의 역사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신현준의 월드뮤직 속으로》의 주제는 ‘음악’만이 아니다. 12개 권역의 각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본 후 음악의 특성과 주요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곳의 문화

.....” 그동안 들어왔던 음악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카요와 캄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이 우리의 삶과 먼다른 관련 없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는데 그게 월드뮤직이라는 장르였습니다.”



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문화연구적인 이야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책에는 두 가지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산’이라는 의미의 ‘디아스포라’이고,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잡종화라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서양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 우리 것을 무조건 따르며 박제된 전통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통이 아닌 것, 뒤섞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기만 하는데 그런 문화적인 대안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실제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손에 꼽힐 만큼 적다. 그래서 이 방대한 음악 여행기는 웹진 weiv(www.weiv.co.kr)와 음악잡지 <Vox>에 연재하면서 인터넷 정보의 바다를 헤친 ‘대안적’인 경험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지나간 것에 대한 정리를 잘 안 합니다. 특별한 관심은 아니고 지나간 것의 가치를 되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대중음악 평론을 해도 잘 정리되지 않을 변방의 음악을 이야기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저리나 중심이나 모두 다수의 것이죠.”

그의 일상은 ‘음악’과 ‘문화’로 이루어져 있다. 어느 날은 성공회대학교에서

‘대중음악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어느 날은 각종 음악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음악평론가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이나 문화잡지에서는 문화평론가라는 직함으로 얼굴을 내민다. 이처럼 문화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이유를 찾을 때 그가 386세대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 그는 대학생 시절에 밴드활동을 했던 경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음악을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시기만 아니었으면 음악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유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밴드를 하는 학생들은 모두 운동권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당시 분위기를 타한 것일 수도 있죠. 평론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음악을 하려면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악은 내 재능과 관계없다는 걸 안 겁니다.(웃음)”

그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음악이 ‘문자메시지 하나의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자신의 10대 시절에 음악은 삶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음악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전락해 버린 듯한 것이다.

“당시에는 핑크 플로이드, 레드 제플린 그리고 신중현, 이장희 등이 어떤 문화적인 텍스트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럴 만

한 것들이 없어요. 지금은 집단놀이문화가 발전해 혼자 음악을 듣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오랫동안 지속력을 갖는 음악문화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는 ‘월드뮤직’이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서양음악을 너무 어설프게 모방하는 우리 음악문화에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움을 접해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것도 그런 까닭이다..

“사람들이 이 책에 소개된 음악을 한번이라도 들어봤으면 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재즈바람이 분 적이 있었는데 월드뮤직이 재즈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었으면 해요. 그리고 음악 듣는 문화에 대해 진지함을 갖고 공적인 형태의 담론을 형성했으면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 언급된 음악들이 유일한 월드뮤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음악을 찾아 듣기를 간곡히 권했다. 다음에는 아시아의 월드뮤직에 관한 책을 낼 예정이라고 밝힌 그는 자신의 장기계획은 철학자인 ‘에릭 호스봄’의 저서들처럼 문화를 화두로 잡는 저술활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취재 김정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